

‘노병’은 죽지 않았다

KIA 이종범 통산 600타점…‘화려한 부활’ 기대

“KIA타이거즈의 역사, 이종범의 ‘바람’이 분다”

KIA의 이종범이 지난 2일 두산 베어스와의 광주 홈경기에서 프로야구 통산 31번째 600타점을 달성했다. 티셔츠에 들어설 때마다 기록을 새로 쓰는 1위 암준혁의 1천275타점과는 거리가 멀지만 이날의 타점은 KIA팬들과 이종범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1점이었다.

전지훈련 기간 중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이종범이었다.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끌는 질문에 조범현 감독이 망설임 없이 이종범을 지목할 정도였다. 연습경기에서 홀런포를 쏘아올리는 등 맹활약을 하자 팬들의 기대도 높아졌다.

그러나 지난달 9일 시범경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전지훈련에서 보여주던 날카로운 타격이 아니었다. KIA의 최고참 타자 이종범은 시범경기 10경기에 나서 33타수 5안타로 0.152의 타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타점은 3점에 불과했다.

지난해 최악의 부진을 딛기 위해 겨우내 구슬땀을 흘렸던 이종범은 지난달 29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개막전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교체 선수로도 나서지 못한 이종범은 경기 내내 벤치를 지켜야 했다. 30일 경기에 선발로 나섰지만 3타수 무안타.

결국 두산과의 홈 개막전이 있던 지난 1일 KIA 최고참 타자 이종범의 이름 대신에 후배들의 이름이 전광판을 가득 채웠다. 이종범은 개막전 이벤트로 차량을 타고 경기장을 입장하는 주전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야 했다. 하지

만 선수 소개 시간에 경기장을 가득 메운 1만여 관중은 이종범이라는 이름에 가장 큰 박수를 보냈다.

두산과의 2차전이 진행되던 지난 2일 이종범은 팀이 2-0으로 아슬아슬한 리드를 이어가고 있던 4회 말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타석에 들어섰다.

상황은 2사 1, 3루. 올 시즌 7번째 타석에 선 이종범은 빠리거 김선우의 공을 받아 좌익수 앞에 떨어뜨리며 3루 주자 김선빈을 홀로 불러 들었다. 팀의 3연패와 자신의 부진 탈출을 알리는 의미를 지난 귀중한 타점이었다. 2008시즌 첫 안타가 통산 600타점으로 이어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날 이종범의 타점만큼이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종범의 방망이였다. 전지훈련 중 이종범은 “안타를 쳐 방망이를 부러뜨려라”며 19살이나 어린 야무진 후배 김선빈에게 자신의 방망이를 주었다.

2일 경기에 선발 출전한 신인 김선빈은 하늘 같은 선배 이종범의 방망이를 들고 2타수 2안타 1득점 1타점 1 도루를 기록하며 화려한 프로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그리고 이종범의 방망대로 김선빈은 5회 말 2루타를 터트리며 방망이를 부러뜨렸다.

‘New Start KIA Tigers!’라는 올 시즌 팀의 캐치프레이즈처럼 KIA의 마지막 한국 시리즈 MVP 이종범은 새 시작의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루키들 “프로 매운 맛 실감”

나지완(KIA)·허승민(삼성)·정찬현(LG) 등

예상 밖 부진…프로무대 적응 ‘아직은’

새내기들이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다. 시범경기를 통해 당장 주전감으로 손색없다는 평을 받았던 신인들이 프로야구 시즌 초반 그라운드에서 하나 둘 씩 밀려나고 있다.

2008년 개막전 엔트리에 15명이 포함되는 등 어느 해보다 걸출한 신인들이 많다는 평 가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프로의 벽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지난 2월 단국대를 졸업한 KIA의 오른손 강타자 나지완(23)은 시범경기에서 홀런 2개, 타점 0.318로 뜨겁던 방망이가 점규시즌에서는 잠잠하다.

지난 2일 두산전에서는 3타수 2안타를 날렸지만 현재 4경기에서 타율 0.182(11타수 2안타), 타점 한개에 그치고 있다. 지난 달 29일 개막전에서 신인으로는 처음으로 ‘호랑이 군단’의 4번 타자를 맡았지만 세번째

출장인 1일부터 메이저리그 출신 최희섭에게 4번 자리를 내주고 6번으로 밀려났다.

KIA는 ‘지그재그’로 중심타선을 짜기 위해 나지완을 4번 타자로 계속 키울 계획이지만 프로 투수들의 날카로운 공에 적응하지 못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에서 유력한 루타자 후보였던 건국대 출신 외야수 허승민(22)도 사정은 마찬가지. 시범경기에서 재치있는 주루플레이와 튼튼한 수비로 주목받은 허승민은 4경기 연속 중견수로 출장했지만 10타수 무안타로 볼넷 한개를 얻는데 그쳤다.

나지완과 허승민은 시범경기에서 10타수 2안타, 타점 0.318로 뜨겁던 방망이가 점규시즌에서는 잠잠하다.

지난 2일 두산전에서는 3타수 2안타를 날렸지만 현재 4경기에서 타율 0.182(11타수 2안타), 타점 한개에 그치고 있다. 지난 달 29일 개막전에서 신인으로는 처음으로 ‘호랑이 군단’의 4번 타자를 맡았지만 세번째

요미우리 개막 5연패

팀 창단 이후 최악

이승엽(32)이 뛰고 있는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구단 창단 이후 최악의 시즌을 맞고 있다.

요미우리는 지난 2일 주니치에 0-3으로 패해 개막 5연패 늪에 빠졌다.

일본 언론은 1935년 창단한 요미우리가 개막 5연패로 시즌을 시작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30억엔’ 타선으로 불리는 막강 라인업이 좀처럼 점수를 뽑지 못하고 있는 게 결정적이다.

요미우리는 다섯 경기에서 고작 10점을 얻어 개임당 평균 2득점 하는데 그쳤다.

그 사이 마운드는 29점을 헌납, 개임당 6점 가까이 쳤다. “4점을 뽑고 3점 이내로 막아 이기겠다”는 하라 다쓰노리 감독의 구상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다.

요미우리는 시범경기와 연습경기를 합친 19경임에서 평균 1.68점을 그쳤는데 저조한 분위기가 정규 시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박찬호 빅리그 복귀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개막전 보스턴에서 아깝게 탈락했던 박찬호(35·사진)가 시즌 시작 나흘 만에 빅리그로 스타터에 합류한다.

다저스 구단은 3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이 끝난 뒤 트리플A 라스베이거스로 내려간 후수 박찬호를 빅리그로 불러 올리고 내야수 앤헬 차베스를 방출 대기 조치시켰다고 밝혔다.

다저스 홈페이지는 박찬호가 ‘많은 이닝을 던질 수 있는 스윙맨’으로 활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저스가 갑작스럽게 박찬호를 찾은 이유는 이날 악천후로 선발 투수를 모두 썼기 때문이다. 이날 경기는 4시간25분간 치러졌고 다저스의 1-2 패배로 끝났는데 느닷없이 비가 퍼부어 1시간14분이나 경기가 중단되면서 조 토레 감독은 투수 운영에 애로를 겪었다.

토레 감독은 이날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경기 시작 17분 전 선발 투수를 채드 벌링슬리에서 대만 출신 좌완 귀홍즈로 바꿨다.

전에서는 4이닝 무실점으로 잘 던졌지만 최근 흔들리고 있다. 1일 삼성전에서 7회 구원 등판해 4타자를 상대로 몸에 맞는 공과 볼넷으로 진땀을 흘리더니 2일에는 1과 3분의 2이닝 동안 안타와 볼넷을 2개씩 내주면서 1실점해 패전투수가 됐다.

반면 최단신 내야수 김선빈(19·KIA)은 지난 2일 두산전에서 2루수 겸 9번 타자로 선발출장해 2타수, 2안타, 1타점, 1도루로 데뷔전을 화려하게 치렀고 좌완투수 진야곱(두산)도 중간계투로 1과 3분의 1이닝을 무안타로 막아 활약을 예고했다.

아직 몇 경기를 치르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망 신인들이 프로무대에서도 뿌리내리기 위해선 한동안 ‘성장통’을 겪어야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농구 KT&G 주희정

6강 PO 수훈선수로 선정

프로농구 안양 KT&G 포인트ガ드 주희정(31)과 서울 삼성 백업 멤버 이원수(25)가 시즌 시작 나흘 만에 빅리그로 스타터에 합류한다.

KBL은 경기기술위원 13명이 투표로 선정하는 2007-2008 SK텔레콤 T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 수훈 선수로 주희정과 이원수가 뽑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서 주희정은 13표 가운데 최다인 6표를, 이원수는 7표를 각각 받았다.

**글프·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록펠러 회원권**

제작 「록펠러 회원권」이, 상공회비
에서 월드컵 경기장 할 모아래트초타운
으로 확장마감 화제입니다.
경주에 일자리 대한민국 최고의 거래소
가 되겠습니다.

설립 분의 (062)351-0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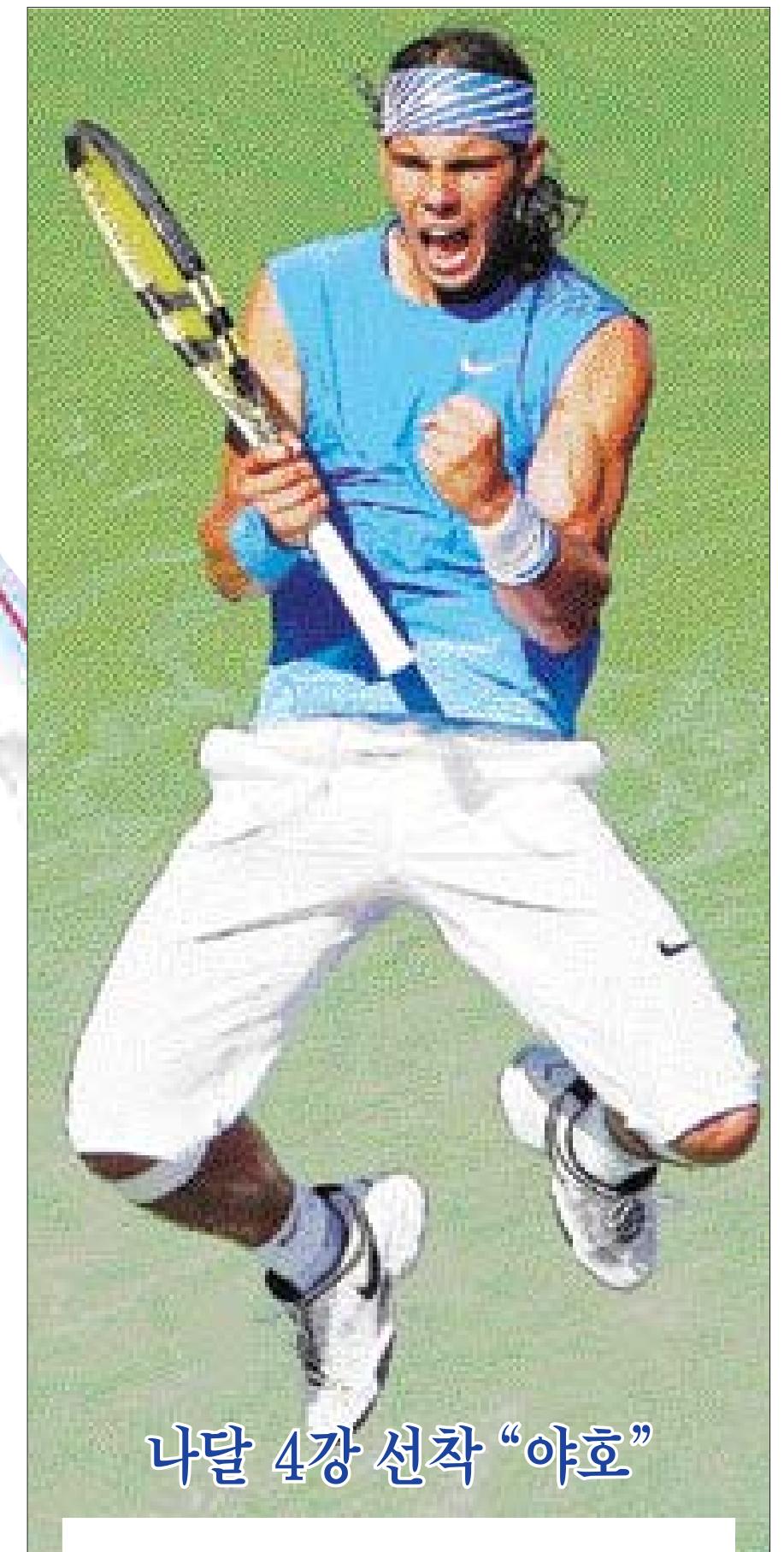
광주체고 박대승·류주현 ‘금’

0으로 꺾고 금메달을 따냈다.

배종찬(광주체고)은 남자일반 그레고로만형 55kg 결승에서 이영종(구로구청)에 0-2로 패해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이밖에 남고부 그레고로만형 63kg 이병민(광주체고 3년)과 그레고로만형 54kg 김은빈(광주체고 2년)은 각각 이재현(대전체고)과 김경우(경기 안중고)에 패해 동메달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나달 4강 선착 “야호”

에릭슨오픈 테니스 男單식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 2위 라파엘 나달(22·스페인)이 마스터스 시리즈 소니 에릭슨 오픈 남자단식 4강에 선착했다.

나달은 3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그랜드파크에서 열린 남자단식 8강전에서 제임스 블레이크(9위·미국)에 2-1로 역전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올랐다. 지난 달 25일 끝난 페시픽 라이프 오픈 8강

에서도 블레이크에 2-1로 이겨 4강에 올랐던 나달은 마스터스 2개 대회 연속 4강에 진출하게 됐다. 나달은 이고르 안드레예프(32위·러시아)-토마스 베르디흐(10위·체코) 전 승자와 결승행을 다툰다.

여자단식에서는 엘레나 얀코비치(3위·세르비아)가 엘레나 데멘티예바(11위)에 기권승을 거뒀고 베리 즈보나레바(20위)도 디나라 사피나(13위·러시아)에 2-0으로 이겨 나란히 4강에 올랐다.

영리엄 텐콕 배영 50m 세계新

대표 선발전서 24초47 기록

리엄 텐콕(23·영국)이 배영 50m 세계 기록을 5년 만에 갈아치웠다.

텐콕은 3일(한국시간) 영국 세필드 폰즈 포기수영장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영국 대표 선발전 배영 50m에서 24초47을 찍어 200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